

영혼론과 기독교윤리: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의 영혼론에 대한 소고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어거스틴의 영혼론
- III. 아퀴나스의 영혼론
- IV. 마틴 루터의 영혼론
- V. 결 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10>

• ABSTRACT •

Theories of Soul and Christian Ethics: A Study on Augustine, Aquinas
and Martin Luther

Yoo, Kyoung-dong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ntroduces the thoughts of Augustine, Thomas Aquinas and Martin Luther, asking the nature of souls in relation to Christian Ethics.

In the discussion of the comparison and relationship among the above traditional Christian theologians, those issues surrounding souls, will, sin and God's grace are engaged to explore the meaning of morality and responsibility. For Augustine, soul is immortal but limited because of the disobedience of man to God. Soul in this regar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n ontological vehicle to make the mortal to be reborn by the grace of God. Thomas Aquinas thinks soul as immortal and views it as reason that leads man to recover one's fallen image of God. For Aquinas, soul also acts as epistemological and moral power that cultivates whole beings. On the other hand, Luther points out the total depravity of man by sin and seeks a prevenient grace of God instead of human possibility. For Luther, soul is only meaningful when it is saved by God through faith. Therefore soul changes from disobedience to faith in God.

After reviewing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Christian notion of soul ought to be emphasized when we consider the world of materialism where man endlessly desires desire. To achieve this goal, Christian ethics has a mission to cultivate a sense of morality through stressing spiritual awakening of soul.

Key words: Soul, Augustine, Aquinas, Martin Luther, Morality

I. 들어가는 말

‘영혼’에 관한 신학적 주제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신학의 핵심이 되는 신론과 인간론, 그리고 죄론의 주제와 연관이 된다. 신론에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개념과 연결이 되며, 인간론에서는 인간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도덕적이며 존재론적 요청과 연관이 된다. 아울러 영혼은 또한 인간이 육체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¹⁾

필자는 이 글에서 영혼개념과 연관된 도덕과 윤리의 회복을 통한 인간 존재론을 살피고자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창1:26)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를 설명한다. 인간은 타락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으며, 기독교윤리학적으로는 이 변화를 통한 거룩한 삶을 성취하는 윤리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가능성을 인간의 영혼론과 연결시켜왔다. 기독교인의 성화된 삶의 전제 조건이 되는 영혼의 회복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원론적 구조를 형성하고, 영적 회복은 상실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심의 회복을 통하여 제자도의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혼론은 자칫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실천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육체의 활동을 부정하게 되어 도덕적 이원론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거스틴(Augustine)과 아퀴나스(Thomas Aquinas), 그리고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육체와 영혼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이원론적 사유를 한편 지향하면서도 도덕적 이원론에

1) 케네스 보아,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송원준 옮김, 디모데, 2005), 332.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들의 사유 속에서는 이원론을 극복하는 이론적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존재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성적 위계를 통하여 영과 육이 통합되는 면을 보게 된다.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에 이른 선악의 문제와 영육의 이원론적 문제는 영혼과 치유와 육체의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권 안에서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현대 기독교세계관에 선과 악,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적인 경향이 자칫 윤리적 수동주의나 정적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기독교 고전을 형성하며 아직도 기독교의 신학적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영혼론을 고찰하여 보겠다. 둘째, 각 영혼론을 비교하고 도덕적 이원론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 이와 같은 영혼론이 현대 기독교윤리학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간단하게 제안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위의 세 고전적 신학자들의 영혼론이 각론에서 다루어진 적은 있지만, 비교 검토한 예는 거의 없었다. 바라기는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본 글의 논지가 영과 육, 감각과 사유, 의지와 행위, 그리고 말씀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윤리적 관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어거스틴의 영혼론

어거스틴은 영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비물질적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영혼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영혼을 죄와 연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영혼이 인간의 욕망과 연관하여

불순종에 빠지게 된 이유를, 그리고 셋째는 영혼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어거스틴은 영혼을 인간의 타락과 죄의 용서를 연관하여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타락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형벌을 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²⁾ 어거스틴은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보았다.³⁾ 아울러 영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⁴⁾ 인간이 한번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멸망에 빠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실수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와 잘못을 개의치 않는다.⁵⁾

어거스틴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기쁨(enjoyment), 또는 쾌락(pleasure)이라는 욕망이라고 보았다. 문제는 인간의 죄는 단순히 육체적 욕망이 그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욕망하는 주체는

2) Saint Augustine of Hippo, trans. by J. F. Shaw,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Philip Schaff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2: St. Augustin's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edition), Book 1 Chapter 12. 이하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로 통일한다. 참고로 어거스틴의 '영혼론'은 그의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On Christian Doctrine)" 인터넷 영문판을 참고하였으며 이 내용은 위의 인터넷 도서 맨 뒤에 위치하여 있다. pdf 파일에 있는 원본 도서의 페이지는 생략하고 대신 'chapter'로 표기한다. URL=<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html> "참고로 이하 어거스틴의 사상을 단락으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할 경우, 직접인용을 제외하고는 간접인용은 같은 단락 맨 뒤에 후주로 처리한다."

3) Book 2 Chapter 1. URL=<http://www.ccel.org/ccel/Augustine>. 참고) 인터넷 상의 원본 페이지 명기는 생략하고 'chapter'로 표시한다.

4) 위의 책, Book 2, Chapter 2.

5) 위의 책, Book 2, Chapter 6.

영혼의 의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정신적 구성물이지만, 인간이 가진 죄의 욕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영혼은 이중적인 존재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육체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타락에 이르기에도 하는 것이다. 영혼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것과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⁶⁾

따라서 인간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지만(창 3:1-5),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하여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유롭게 된다(고전 1:25). 인간은 불멸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죽음의 형벌을 반복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생을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신다. 창세기의 하와를 통하여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영혼을 통해 원죄라는 병을 유전 받게 되지만, 인간은 마리아를 통한 순결한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⁷⁾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따라서 죄의 욕망으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본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구원에 이르게 된 인간은 이제 진정한 쾌락의 대상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적 인간 존재의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될

6)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Book 1, Chapter 23.

7) 위의 책, Book 1, Chapter 14.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회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육체의 죽음도 함께 따르며, 육체 또한 삶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영혼이 회개를 통해 과거의 타락한 악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영혼이 욕망에 빠진 육체,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때에 더 나은 형태로 변화되어진다. 인간의 육체와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지만, 죄의 회개와 영혼의 회복,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거듭난 육체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부활과 영생에 거하게 된다. 비록 인간의 육체는 본래의 자연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영으로 인해 완전히 순결하고 행복하게 되어 깨어지지 않을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⁸⁾ 어거스틴은 육체적인 죽음이 곧 영혼이나 육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한 번 죽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⁹⁾

타락하였던 인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인간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존재 위에 계시며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되시고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진정한 기쁨이 됨으로써 타락한 쾌락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게 된다고 주장한다.¹⁰⁾ 따라서 하나님 안에 회복된 인간의 영혼은 분열되었던 자아를 구성하는 육체와 영혼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실존을 빛의 근원으로

8) 위의 책, Book 1, Chapter 19.

9) 위의 책, Book 1, Chapter 21.

10) 위의 책, Book 1, Chapter 5.

이해하며, 진리는 그러한 빛 자체이며, 불변하는 것으로 본다. 인간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즐겨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은 순결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영혼의 순결함이란 곧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수한 욕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영위하는 덕의 습관을 육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영과 육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셋째, 어거스틴은 영혼론을 통하여 사랑의 완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영혼이 육체에 앞선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육체는 영혼을 통해서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만일 육체가 영혼에 의하여 움직여지면, 사랑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면, 사랑의 완성에 인간이 헌신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영혼에 따라서 그 지음 받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진실로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꼴로 창조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입은 유한한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모든 짐승보다 높은 존재로 만드는 인간의 합리적 영혼의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¹²⁾

인간 영혼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주체로서 인간 자아의 의지적 측면을 담당하며 사랑을 이루어나간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각각 우리의 존재보다 위에 있는 것과 우리 자신, 우리와 비슷한 존재들, 그리고 우리보다

11) 위의 책, Book 1, Chapter 10.

12) 위의 책, Book 1, Chapter 22.

아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¹³⁾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게 되지만,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과 자신,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사랑(love)의 욕망’과 ‘경멸(hate)의 욕망’을 구분한다.¹⁴⁾ 사랑의 욕망은 절대적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이라면, 경멸의 욕망은 그 한계를 모르고 그 자체를 넘어서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바로 일종의 경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경멸의 욕망이란 자신보다 아래의 것들이 자신에게 순종해야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불의와 같으며, 결국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을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이 약해지면, 인간의 육체 또한 이로 말미암아 유한한 육체의 고난을 더 감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경멸의 욕망은 결국 육체를 향한 사랑이 되며, 타락함에 따라 인간은 더욱 슬퍼하게 된다. 죄악으로부터 육체가 벗어나려면 오로지 불변하신 하나님을 더 지속적으로 바라는 영혼의 강건함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만일 사람이 정의로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자신이 직면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편견 없이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으려면, “그는 그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더 사랑

13) 위의 책, Book 1, Chapter 23.

14) 위의 책, Book 1, Chapter 23.

해야 하는 것과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동등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동등하게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¹⁵⁾ 어거스틴은 인간이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죄인 그대로의 상태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된다는 조건에서는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육체보다도 영혼을, 그리고 자신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친교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육체로는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영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영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에게 영혼이란 하나님의 본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며, 어떠한 물질적 실체도 아니다. 즉 인간 영혼의 상태는 창조된 존재인 동시에 비물질적이다. 중요한 점은 인간 영혼은 변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창조주 자체와 구별되며,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규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염두에 둘 때, 육체와 연관하여 영혼은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거하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나아가 모든 존재와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론적으

15) 위의 책, Book 1, Chapter 27.

16) 위의 책, Book 1, Chapter 27.

17) Michael Mendelson, "Saint Augustine,"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2/entries/augustine/>>.

로는 영육의 이원론의 경향이 강하지만, 영혼의 역할로 윤리적 수동주의나 정적주의로 후퇴하지 않으며, 영혼의 회복으로 육체적 한계를 함께 극복하는 전인적 존재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III. 아퀴나스의 영혼론

어거스틴의 영혼론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죄로부터 구속되어야 할 비물질적인 실체로 보았다면, 아퀴나스는 영혼을 육체를 이끌 이성으로 보았으며,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자연법적 관점을 강조한다. 아퀴나스에게 영혼은 세 가지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첫째 영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원죄에 의하여 훼손당하였지만 불멸한다고 이해하였고, 둘째, 영혼은 육체를 이끌 이성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셋째 영혼도 형상과 질료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궁극적으로는 형상의 원칙을 따르게 되는 질료처럼 영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그 뜻을 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퀴나스는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육체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으며, 영혼 자체는 부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 이후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원죄에 감염이 되었으며, 영혼 또한 마찬가지이다.¹⁸⁾ 영혼의 주된 속성은 지성적(intellect)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죄에 의하여 인간의 영혼은 혼란에 휩싸

18) Thomas Aquinas, *Nature and Grace: Selections from the Summa Theologica of Thomas Aquinas*, 122-123. 아퀴나스의 저서들은 Christian Ethereal Library에 나오는 그의 영어 판 저작물 edition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참고 출처는 원본의 별도 페이지 인용을 따른다. URL=<http://www.ccel.org/ccel/Thomas Aquinas>. “참고로 이하 아퀴나스의 사상을 단락으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할 경우, 직접인용을 제외하고는 간접인용은 같은 단락 맨 뒤에 후주로 처리한다.”

이게 되었는데, 아퀴나스는 그 결정적 이유가 ‘원정의(original justice)’를 따르지 않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원죄의 속성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¹⁹⁾ 따라서 영혼은 ‘원정의’로부터 이탈되어 죄된 습관에 지배당하게 되며 결국은 원정의가 박탈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우선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정반대임을 뜻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모든 것은 생성되거나 창조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부분들의 조합으로 생성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육체를 통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피조된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영원하거나 선제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영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다.²⁰⁾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은 그 물질을 구성하기 재료들을 전제하지만,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영혼은 그 자체로 비물질이기 때문에 무로부터 창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²¹⁾ 따라서 그의 인간론은 어떠한 사물이나 존재의 목적은 언제나 그 시작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인간 영혼의 목적과 최종적인 완성 또한 지식과 사랑을 통해 피조된 것들 전체의 질서를 제정하였으며 처음이자 첫 번째 원리인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은 처음 생겨난 것이다.²²⁾

19) Thomas Aquinas, *Nature and Grace: Selections from the Summa Theologica of Thomas Aquinas*, 123.

20) Aquinas, *Of God and His Creatures, Summa Contra Gentiles* by Joseph Rickaby, S.J.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chapter)87, N(number) 1. <http://www.ccel.org/ccel/aquinas/gentiles.html>

21)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Ch.87, N.2.

22)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Ch.87, N.5.

영혼은 인간에 있어서 불가분의 형상으로서, 비물질적인 실존이지만, 그 자체가 인간과 하나인 것은 아니다. 영혼의 이성적 능력은 수동적 지식과 능동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영혼이 육체에 앞서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영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며, 원죄로 인해 인간의 공의로움과 인간의 능력과 욕망 사이의 조화가 깨어지게 됨으로써 영혼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²³⁾ 아퀴나스는 인간 영혼의 능력이 곧 형상의 본질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간 영혼의 작용은 물질의 범주(genus)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연결된 능력도 물질의 범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아퀴나스는 영혼의 본질은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며 결과적 행위로서 파악되는 잠재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²⁴⁾ 영혼의 작용과 범주가 동일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영혼의 작용은 물질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곧 하나님 자신의 물질이다. 하나님 자신의 작용의 원인인 신적 능력은 곧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다.”²⁵⁾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영혼은 그 본질에 따라 행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영혼이 항상 실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로 향하는 잠재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의 일차적인 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인간의 육체는 철저하게 영혼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규명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특성

23)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Saint Thomas Aquinas (1225-1274),"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aquinas/#SH2a>

24) Aquinas, *Summa theologica*, tr.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Y: Benziger Bros., 1947).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I-II(1st part of 2nd part), Q(question)77, A(article)1. 이하 ‘*Summa*’로 통일한다.
<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html>

25) Aquinas, *Summa*, I-II, Q.77, A1.

인 것이다. 인간 존재란 영적 물질과 육체적 물질로 구성된 존재이며, 인간은 영혼과 관계하여서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육체적 수준에서 영혼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육체는 오로지 영혼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파악되며 영혼의 능력 안에 제한된다.²⁶⁾

둘째, 아퀴나스의 영혼론의 특징은 비록 영혼이 잠재태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맥락에서 파악하지만, 육체와의 관계를 이원론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영혼을 형상과 질료라는 존재론적 구성하는 원리를 통하여, 형상으로부터 질료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성적 영혼이 감각적 능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그렇다고 감각적 능력과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성적 영혼은, 그것이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감각의 방식을 통해 개별적인 지식을 수집한 것이라면, 이는 이성적 실존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본질은 절대로 필연적인 것에 대하여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성적 영혼은 이해 능력으로뿐만 아니라, 감각적 능력으로도 부여되었다.”²⁷⁾ 이러한 아퀴나스의 설명은 이성적 영혼의 작용과 능력은 육체의 작용과 능력을 거치지 않고는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촉감에 관한 이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촉각을 감지하는 육체의 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성적 영혼에 육체가 결합됨으로써 인간의 이성적 능력 또한 발현될 수 있다.²⁸⁾

아퀴나스는 인간의 영혼은 그 역할과 작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라고 본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을 예를 들어서 설명

26) 위의 책, I-II, Q.75, Preface.

27) 위의 책, I-II, Q.76, A5.

28) 위의 책, I-II, Q.76, A5.

하는데, 만일 임신초기에 주어지는 식물적 영혼(the vegetative)이나 임신기에 모태가 태동을 느끼는 감각적 영혼(the sensitive soul), 그리고 인간에 필수적인 이성적 영혼(intellectual/rational soul)과 같은 다양한 영혼들이 서로 각기 구성된다면, 인간은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⁹⁾ 아퀴나스는 식물적, 감각적, 그리고 이성적 영혼이 한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영혼으로 존재한다는 플라톤적인 입장을 반대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영혼이 육체를 다양하게 기능하게끔 한다고 강조한다.³⁰⁾ 아퀴나스는 비록 다양한 종과 류가 존재하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 보다, 동물이 식물보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보다도 더 완전한 것처럼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적인 영혼(nutritive soul)보다는 동물의 감각적 영혼이, 그리고 감각적 영혼보다는 이성적 영혼이 더 완전한 것이며, 따라서 이성적 영혼이 그 하위체계의 영혼들을 통합하고 있다고 보았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 아퀴나스는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자 육체를 움직이는 원리로서 육체와 결합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영혼의] 실재성은 [육체의] 잠재성보다 앞서지만, [영혼과 육체가 속한 동일한 [인간] 주체 안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는 영혼이 육체보다 뒤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어떠한 물체는 잠재성으로부터 실재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살아있는 씨앗은 생명의 실재성인 영혼이 있기 전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³¹⁾

아퀴나스가 인간 존재를 영혼과 육체의 조합으로 보는 것은 인간 행위의 본질을 이성적 행위와 의지적 행위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는 일차적인 조건은 바로 합리성이다. 합리성은 이

29) 위의 책, I-II, Q.76, A3.

30) 위의 책, I-II, Q.76, A3.

31) 위의 책 *Contra Gentiles*, Ch.83-84, N.1.

성적 운동으로서,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파생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이러한 합리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는 육체와 영혼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³²⁾ 아퀴나스는 인간의 본질로 파악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적절한 작용은 이해능력이라고 보았다. 특히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서 이해력은 모든 다른 동물을 능가하게 하는 인간 고유 본질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행복은 인간에게 적절하게 속한 이해력에 근거한 지능적 작용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데, 작용은 이해력이라는 형식으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원리는 결국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이해력을 작동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역할이며 육체의 형식이라는 점을 아퀴나스는 강조한다. “영혼은 우리의 영양분과 감각, 지능적 움직임, 그리고 이해력과 같은 것들의 일차적 원리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게 하는 이 원칙[으로서 영혼은 그것이 지능으로 불리든지, 아니면 이성적 영혼으로 불리든지, 이는 육체의 형식이다.”³⁴⁾ 따라서 영혼이 육체보다 우위에 있지만 영혼의 기능은 육체와 연관하여 파악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통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다른 동물의 영혼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비물질적이지만 이성적 영혼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이 된다. 인간의 이성적 영혼 또한 비물질적인 실존으로서 물질적 형상과는 구별된다.³⁵⁾

32) Ralph McInerny and John O'Callaghan, "Saint Thomas Aquina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5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5/entries/aquinas/>.

33) Aquinas, *Summa*, I-II, Q.76, A1.

34) 위의 책, I-II, Q.76, A1.

35) 위의 책, I-II, Q.75, A6.

“이제 인간의 영혼은 가장 고귀하며 고결한 형식이다. 영혼은 육체적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힘과 작용을 가지며, 그 사실을 통해 그 힘이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다.”³⁶⁾ 아퀴나스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영혼 또한 형상과 질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본적 존재론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영혼의 형상은 육체의 형상과는 구별된다. 영혼의 형상이 궁극적으로 행위를 이끌어내는 원리가 된다면, 육체의 질료는 그 행위를 이루는 잠재체가 된다. 계층적 존재론의 질서 차원에서 영혼이 육체보다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영혼과 육체를 별개의 이원론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통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셋째, 아퀴나스는 영혼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 존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위로부터 상위로 나아가는 귀납법적 방법론을 통하여 실천과 이성을 통합하며 인간의 영혼은 자연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과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다.³⁷⁾ 특히 이성적 영혼이란 위계질서

36) 위의 책, I-II, Q.76, A1.

37) 위의 책, I-II, Q.78, A1. 참고로 아퀴나스에 따르면 영혼은 다섯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각각 식물적(the vegetative), 감각적(the sensitive), 미각적(the appetitive), 운동적(the locomotion), 그리고 이성적(the rational/intellectual)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최소한 식물적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것은 각각 다양한 외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적인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에 작동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식물적 영혼’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식물적 영혼의 세 가지 능력(power)을 각각 영양적(nutritive), 증가적(augmentative), 그리고 발생적(generative)이라고 보았다. 식물적 영혼의 영양적인 능력이란 생존에 필요한 자양분을 보충하는 기능을 말하며, 증가적 능력이란 성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산의 기능을 통하여 발생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다. 감각적 영혼은 육체적 기관들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데에 필요하며, 외적인 것을 감지하는 오감의 작동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내적 감각인 기억과 상상과 같은 것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감각적 영혼은 동물이나 인간에게 있지만, 식물과 같은 종류에게는 없다고 보았다. 이 감각적 영혼은 동물도 오감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생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하며, 인간에게는 위의 식물적 영혼의 예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감각적 영혼은 존재 방식에 보다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에 따라서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이 되고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고정된 본질적 사고에 제한될 수 없다. 아퀴나스는 비유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과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기관들(organs of organs)’을 가지고 스스로 수많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한한 종류의 도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⁸⁾ 이러한 관점은 영혼이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영혼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성적 영혼은 육체적 인 속성을 능가하며, 육체적 기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³⁹⁾ 이 이성적 영혼은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혼으로서 이성의 기능을 통하여 인식하고, 이성적 영혼 안에 지혜와 이성이 담겨져 있다고 아퀴나스는 이해하였다. 이 이성적 영혼도 감각적 육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서 육체적 기능과 감각적 능력들을 훨씬 능가하며, 육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성적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기억에 관한 것이다. 아퀴나스는 ‘기억과 이해력, 그리고 의지’는 다 하나의 체계라고 인식하였던 어거스틴의 관점에 있다.⁴⁰⁾ 또한 이성(reason)과 지혜(intelligence), 그리고 사변적 지식(speculative intellects)도 강조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아퀴나스가 인간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intellects)의 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⁴¹⁾ 따라서 우주적인 최상의 진리를 도덕적 선택의 체계로 인지하는 신데레시스(synderesis)와 양심(conscience)을 이성

38) 위의 책, I-II, Q.76, A5.

39) 위의 책, I-II, Q.78, A1.

40) 위의 책, I-II, Q.79, A6.

41) 위의 책, I-II, Q.79, A8, A9, A11.

적 영혼의 능력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아퀴나스는 인간 영혼의 도덕적 관점을 이상적으로 구성한다.⁴²⁾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퀴나스는 영혼 자체를 인간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물질적 실존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개별적인 영혼이 개별적 인간이라고 보는 데에 대하여는 긍정한다. 영혼이란 육체 없이도 존재하는 실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귀속되는 성질들 중에 영혼에만 속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퀴나스는 인간 영혼에 대한 사고는 철저히 영혼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육체적 속성을 들어 영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⁴³⁾ 특히 영혼을 육체의 형상이며, 원리로서 육체와 결합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육체가 영혼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관점이 강하여 아퀴나스의 영혼론은 일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혼의 도덕적 능력을 긍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혼론을 통하여 덕의 윤리가 강조되는 그의 이론은 육체의 훈련과 덕의 완성을 영혼과 결부하여 강조함으로써 이원론적으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영혼론은 인간의 사고와 실천, 그리고 이성과 행위를 통합적으로 본다는 점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마틴 루터의 영혼론

어거스틴이 죄로 말미암은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영혼을 중시하고, 아퀴나스가 영혼이 육체의 형상으로서 신적 원리를 따르는 도덕적 능력을 강조하였다면, 루터의 영혼론은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칭의(Justification)'에 있고, 이때

42) 위의 책, I-II, Q.79, A12, A13.

43) 위의 책, I-II, Q.75, A4.

영혼의 거듭남을 강조하는 관점을 펼치고 있다. 루터의 영혼론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육체보다 영혼에 우위를 두고 있지만, 영혼은 비물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대상이며, 둘째,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생하고, 셋째,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지음 받게 되고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루터의 영혼론 특징은 인간의 죄와 연관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인간론은 영혼과 육체라는 존재론적인 형태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파악되지만, 루터는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이라는 의미에서 인간론을 구성한다. 루터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비물질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하여는 부정하며, 또한 자유의지와 같은 인간의 자발적 가능성을 부정하며, 오직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의지의 자유를 가짐을 강조한다.⁴⁴⁾ 따라서 루터는 자유의지를 영혼의 합리적 능력과 의지로 보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율법으로 속박하고 사망으로 인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⁴⁵⁾

루터에게 있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교황이 하나님의 율

44) 마틴 루터의 ‘의지의 속박(De Servo Arbitrio)’ 인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Martin Luther, trans. by Henry Cole, *On the Bondage of the Will: Written in Answer to the Diatribe of Erasmus on Free Will* (London: T. Bensley, 1823;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edition). 이하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Will*’로 통일한다.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Will*, section 17. 이하 루터의 다른 책들은 같은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같은 인터넷 도서관이기 때문이기에 출처는 번역자나 소개자의 이름만 인용한다. “참고로 이하 아퀴나스의 사상을 단락으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할 경우, 직접인용을 제외하고는 간접인용은 같은 단락 맨 뒤에 후주로 처리한다.”

45) 위의 책, section 17.

법으로만 가능한 양심의 문제를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편입한 데에 있으며 이는 결국 교황의 독재로 귀추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영혼을 내적으로 두렵게 하고, 육체 밖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마치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것이다.⁴⁶⁾ 비록 교황이 외적으로는 고해성사와 같은 것으로 인간의 양심을 구속하지만, 이는 인간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더 악화시키며, 점점 더 하나님과 인간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키며, 이는 헛되이 외적인 것들을 통해 육체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위선과 다름없는 것이다.⁴⁷⁾ 루터는 인간의 양심이나 의지, 또는 행위로서는 전적인 구원이 불가능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교도권을 강조하는 사제의 역할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간 존재의 회복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성하는 영혼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권에 의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간의 영혼은 제한적이며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존재론적 구성체이다. 루터는 영혼의 불멸성을 거부한다. 루터는 인간의 영혼이 일시적이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타락하게 되면, 모든 영혼은 파괴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⁴⁸⁾ 루터는 아퀴나스처럼 육체와 영혼의 통합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육체를 위한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영혼의 타락은 육체의 타락이며 육체의 타락은 영혼의 타락과 연관된다는 입장으로 '전적 타락설'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46) 위의 책, section 17.

47) 위의 책, section 17.

48) 위의 책, section 19.

49) Martin Luther, *A Treatise on Good Works*, intro, by M. Reu (Wartburg Seminary,

그러나 영혼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을 바탕으로, 영적인 도성에 거할 실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⁵⁰⁾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영혼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확정될 것이다.⁵¹⁾ 따라서 영혼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합리적인 지식을 이끌어 내는 기본적인 주체적 실존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인간의 육체적인 속성이나 욕구에 반대되는 속성이나 특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 되며,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자연적으로 맹목적이 되고, 그리고 가장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루터는 이해하였다.⁵²⁾ 따라서 인간이 타락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며, 점차 마음이 굳어지고, 어둠의 지배에 구속되고, 심지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악마와 같이 되어 버린다고 루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간파하였다.⁵³⁾ 오히려 악마는 육체에 강한 힘과 왕성한 활동력을 주는 반면, 인간의 영혼에서는 이해력과 이성, 그리고 능력을 빼앗는다.⁵⁴⁾

따라서 루터는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 육신과 영혼에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세례 시에 육체에는 단지 물이 뿌려질 뿐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육체가 영혼과 하나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 둘 다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이다.⁵⁵⁾ 결국 말씀을 통하여 영혼은 소생하고 육체는 회복된

Dubuque, Iowa), 40.

50)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Will*, section 21.

51) 위의 책, section 29.

52) 위의 책, section 37.

53) 위의 책, section 37.

54) Martin Luther, *Table Talks*, trans. by William Hazlitt, 114.

다.⁵⁶⁾ 따라서 루터에게 영혼은 비록 죄의 굴레에 매여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도구가 된다.⁵⁷⁾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Of the Soul)”에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는 이론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설들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고 비판하였다.⁵⁸⁾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Ethics)”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의 덕에 대하여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⁵⁹⁾

셋째, 루터는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new being)’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루터는 인간이 이중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으로써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론을 펼치는데, 이때 영적인 속성과 연관된 것이 영혼이다. 영혼의 회복에 의하여 새롭게 거듭난 인간은 내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한편 육체적 속성과 연관하여 인간은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외적인 옛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55) Martin Luther, *The Large Catechism*, intro. by Abby Zwart (CCEL Staff Writer), 83.

56) 위의 책, *The Large Catechism*, 91.

57) Martin Luther, “On the Primary Principles of Luther’s Life and Teaching” by Henry Wace,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ed. by Henry Wace and C. A. Buchheim (William Clowes and Sons, 1883). 이하 “Martin Luther,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로 통일한다. Christian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 Martin Luther, “Address to the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25.

58) Martin Luther, “Address to the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ed. by Henry Wace D.D. and C.A. Buchheim, 78-79.

59) 위의 책,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Logic), 수사학(Rhetoric), 그리고 시학(Poetic)은 청소년들에게 화법과 설교를 공부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79.

60) Martin Luther, “Concerning Christian Liberty,”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105.

이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4:16).”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다(갈5:17).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의롭게 되고 자유하며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외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루터는 해석한다. 즉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장소에 거할 수 있으며, 기도나 심지어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육체의 노력으로서는 영적인 것을 이룰 수 없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한 의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⁶¹⁾ 즉, 영생은 영혼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며(요 11:25, 요8:36), 아들이신 예수만이 인간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⁶²⁾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말씀으로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참고 마4:4).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부요이며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 진리, 빛, 평화, 의로움, 구원, 기쁨, 자유, 지혜, 덕, 은총, 영광,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다.”⁶³⁾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기 때문에(암8:11)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고 강조하면서, 루터는 성경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복음이며,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고난, 부활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내용이 바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⁶⁴⁾ 영혼은 오로지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인간의

61) 위의 책, 105-106.

62) 위의 책, 106.

63) 위의 책, 106.

64) 위의 책, 106.

행위를 통한 공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과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 루터에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여지고, 진리와 평화 자유에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불가마 속에 있는 철이 불과 같이 작렬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는 영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⁶⁵⁾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진리이며 의롭다는 확신을 통하여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에게 순종하며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인 것이다.⁶⁶⁾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 아래 있던 영혼이 변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고, 영원한 의와 영생, 구원을 얻게 되어 ‘믿는 영혼(believing soul)’이 되는 것이다.⁶⁷⁾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루터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속성으로서, 영혼과 육체, 정신과 이성, 판단 등을 포함시킨다.⁶⁸⁾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영육과 이성과 감각과 같은 것은 결국 육적인 것으로 흐르게 된다.⁶⁹⁾ 육체란 “영이 없는 것으로서 죽을 것, 하나님에 대항 하는 것이

65) 위의 책, 110.

66) 위의 책, 110-111.

67) 위의 책, 112. 루터는 영어번역본으로 ‘믿는 영혼(believing soul)’이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네 번 사용한다.

68)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Will*, section 118.

69) Martin Luther, *Preface to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Romans*, intro. by Kathleen O'Bannon (CEEL Staff). 참고) 인터넷 원본의 pdf 페이지는 6쪽이다.

며, 하나님의 율법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⁷⁰⁾ 루터는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 모두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영혼까지 포함하여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속성을 대표한다고 본다. 전 인류는 육체로 태어난다. 따라서 육체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한 육체와 영혼은 자신의 힘과 노력, 모든 악덕과 덕, 모든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모든 정의로움과 불의함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⁷¹⁾ 따라서 루터의 말씀의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에 대한 강조는 영혼론에 있어서도 인간의 영적 능력이나 육체의 훈련에 근거한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 보다는 하나님의 칭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 따라서 어거스틴이 영혼의 회복을 통한 도덕적 가능성을, 그리고 아퀴나스가 영혼의 도덕적 능력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루터의 영혼론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세 명의 고전 신학자 중에서 영혼의 역할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이지만 칭의에 의한 ‘믿는 영혼’의 강조는 오히려 도덕적 이원론을 극복하는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세 명의 고전 신학자들의 영혼론을 살펴보았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 실존은 육체와 영혼의 혼합체이지만, 그 무게 중심은 육체보다 영혼에 있다. 영혼은 영적 실체로서, 육체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⁷²⁾ 인간 영혼은 하

70)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Will*, section 154.

71) 위의 책, section 119.

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포함한 비물질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영혼이라고 보았다.⁷³⁾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소망의 주체도 영혼이다.⁷⁴⁾ 그러나 어거스틴의 영혼론에 있어서,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는지, 영혼이 어떻게 실체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나 설명이 부족하다. 어거스틴의 영혼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설명은 인간 영혼 자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통한 도덕적 존재로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윤리적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사랑의 계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 존재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는 이원론적 관점을 통하여 이 둘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게 된다. 이는 자연의 법칙으로서 인간은 자신 뿐 만이 아니라 자신보다도 더 낮은 존재들도 사랑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뿐 만아니라, 자신보다도 더 아래 있는 존재들도 사랑하는 것이며, 이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다. 인간이 실존적으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사랑한다면, 이는 같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이웃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회복하면 자신 뿐 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⁷⁵⁾ 따라서 어거스틴의 영혼론은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통한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통하여 영육의 이원론적 문제를 극복하고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론을

72) Michael Mendelson, "Saint Augustine,"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2/entries/augustine/>).

73) Augustine, *Confession*, Book 1, Chapter 18.

74) 위의 책, Book 1, Chapter 13.

75)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Book 1, Chapter 26.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퀴나스의 영혼론에 있어서 특히 이성적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은 어거스틴의 영혼론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을 잘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영혼이 영혼의 본질은 아니면서도 ‘지식적 능력(intellect power)’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⁷⁶⁾ 그리고 잠재태로서 능동태로 나아가는 속성처럼 이성적 영혼의 지식적 능력은 보다 큰 우주적 존재의 완전한 이성과 능력에 통합되는 수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우주적 진리로 나아가는 그 자체로서는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⁷⁷⁾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자연의 다양한 형태는 원초적으로 질료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형태는 본래 질료의 부분이라는 입장을 아퀴나스는 받아들여서 지식이란 질료의 속성이라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혼론의 기본배경은 윤리적 존재론을 형성하여 나아가는 데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태로서의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강조되어 자칫 십자가의 기독교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료가 형상을 추가하는 이상적 존재론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성이 절대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론적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영혼의 이성적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덕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관점은 도덕적 이원론의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루터의 영혼론은 어거스틴이 강조한 육체적 인간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총, 아퀴나스의 도덕적 능력에 대한 관점과는 달리 인간의 절대타락과 인간 이성과 자유의지의 한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인 칭의

76) Aquinas, *Summa*, I-II, Q79, A1.

77) 위의 책, I-II, Q79, A2, A3.

의 차원에서 영혼론을 강조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영혼의 속성과 육체의 속성 및 욕망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하고 부분적으로 악한 죄인이라는 인간론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정의로운 단계로 성장하고 진보할 여지를 둔다. 반면 루터는 인간 존재를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으로 이해하지만 구원의 은총을 통해 칭의되는 과정에 더 초점을 둔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게 육체적 욕구와 의지, 본성의 문제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구원론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육체적 욕구와 영적 의지의 문제는 죄인과 의인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위한 유비적 의미로 제한되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칭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루터는 칭의를 통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통전적으로 봄으로써 도덕적 이원론에 빠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전적 영혼론의 관점은 기독교 사회윤리적 맥락에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어거스틴이 강조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영혼의 회복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이 결코 생략되지 아니한다. 아퀴나스의 일원론적 도덕론의 기반이 되는 영혼론 또한 회복된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훈련하고 덕을 함양하는 인간 존재론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한 전인적 인간의 회복을 강조하는 루터의 영혼론 또한 믿음과 실천의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위의 고전적 관점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칫 영육의 이원론에 빠져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이 자칫 여

타의 피조세계와 비교하여 인간의 존재만을 부각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관한 고전적 이해에서 강조하는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의 함양을 통한 이성과 실천의 강화, 그리고 칭의에 부응하는 전인적 인간상이 구현은 여전히 기독교윤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은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 루터는 불에서 뜨거운 열기와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믿음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⁷⁸⁾ 바로 이러한 신앙적 관점과 신학적 통찰력이 고전적 영혼론에서 발견하는 진수이며 이 시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기독교윤리의 신학적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78) Martin Luther, *Preface to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Romans*. 참고) 인터넷 pdf 원본의 페이지는 6쪽이다.

참고문헌

- 케네스 보아,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송원준 옮김, 디모데, 2005), 332.
- Augustine, *Confessions and Enchiridion*, trans. by Albert C. Outl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5)
- _____. *The Trinity*, trans. by Edmund Hill (New York: New City Press, 1991)
- _____. *Expositions of the Psalm 1-32* (New York: New City Press, 2000)
- _____.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trans. by J. F. Shaw, ed.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2: St. Augustin's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html>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Y: Benziger Bros., 1947),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
- _____. *Nature and Grace: Selections from the Summa Theologica of Thomas Aquinas*.
- _____. *Of God and His Creatures, Summa Contra Gentiles*.
- Luther, Martin, *Assorted Sermons*.
- _____. *A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 _____. *The Large Catechism*.
- _____. *Concerning the Sacrament of Baptism*.
- _____. *The Bondage of Will*.
- _____. *A Treatise on Good Works*.
- _____. *Concerning Christian Liberty*.
- _____.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국 문 초 록 •

필자가 이 글에서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다. ‘영혼’에 관한 신학적 주제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인간은 타락 후에 영적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기독교윤리학적으로는 이 변화를 통한 거룩한 삶을 윤리적 이상으로 하고 있다. 크리스천의 성화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이성적으로는 성경의 복음과 밀착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 자유의지와 양심의 순종으로 제자도의 삶을 영위함으로써 영혼에 관한 신학적 주제는 기독교윤리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현대 기독교세계관에 선과 악,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적인 경향이 자칫 윤리적 수동주의나 정적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신학적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영혼론을 고찰하여 보았다.

어거스틴에게 영혼이란 하나님의 본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며, 어떠한 물질적 실체도 아니라고 이해한다. 즉, 인간 영혼의 상태는 창조된 존재인 동시에 비물질적이다. 또한 인간 영혼은 변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창조주 자체와 구별되며,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영혼을 육체의 형상이며 원리로서 육체와 결합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육체가 영혼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관점이 강하다. 따라서 그의 영혼론은 일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혼의 도덕적 능력을 긍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루터는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 모두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영혼까지 포함하여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속성을 대표한다고 본다. 전 인류는 육체로 태어난다. 따라서 육체인 인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이 강조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영혼의 회복, 아퀴나스의 일원론적 도덕론의 기반이 되는 영혼론, 그리고 루터의 칭의를 통한 전인적 인간의 회복에 기여하는 영혼에 관한 이론들은 자칫 영육의 이원론에 빠져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독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질만능과 기계론적 세계관, 그리

영혼론과 기독교윤리: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의 영혼론에 대한 소고(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10>) | 유경동 305

고 찰나적 육감에 민감한 현대 세계에서 기독교 신학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강조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영혼,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틴 루터, 도덕
